

배포 일시	2022. 10. 12.(수)		
담당 부서	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 운영중 (044-201-4845)
		담당자	사무관 정정희 (044-201-3720)
보도일시	2022년 10월 1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1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K-스마트도시 기술로 글로벌 도시 문제 해결한다

- 태국·튀르키예 스마트도시 로드쇼 성황리에 개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스마트도시협회와 함께 스마트도시 분야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태국 방콕(10.6~10.7)과 튀르키예 이스탄불(10.10~10.11)에서 스마트도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태국과 튀르키예는 교통체증, 환경, 에너지 등 도시문제와 홍수,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, 양국은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- 태국은 방콕, 푸켓, 치앙마이 등 7개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외에도 지자체 50여 개가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며, 튀르키예 또한 이스탄불, 앙카라, 부르사 등 7개 도시에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추진 중으로,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협력센터(KOTRA 다낭·리야드·방콕·이스탄불·자카르타 무역관)를 운영하고 있다.
- 이번 로드쇼는 태국과 튀르키예의 스마트도시 수요를 사전 분석하여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현지 도시·기업들에게 스마트 솔루션을 소개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세미나, 1:1 상담회, 주요 발주처 면담 등으로 구성됐다.

- 6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스마트도시 로드쇼는 ‘한-태국 경제 협력포럼’의 일환으로 태국의 디지털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개최하였다.
- 태국 측에서는 나릿 터엿사티라삭(Narit Therdsteeerasukdi) 투자청장, 파싸콘 프라툼붓(Passakon Prathombutr) 디지털경제진흥원 부원장을 비롯해 지방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, 한국 측에서는 문승현 주태국 대한민국대사, 국토교통부 운영중 도시경제과장,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.
- 동부경제회랑사무국(Eastern Economic Corridor Organization), 방콕시(Bangkok), 반창(Banchang), 콘캔(Khon Kaen) 등 태국 주요 정부 및 발주처들이 연사로 나선 ‘한-태국 스마트도시 협력 세미나’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, 전기차, 스마트 홈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. 이어서 소개된 양국 스마트 보안 및 건강관리 협력사례와 우리 기업의 기술설명회(IR)는 청중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.
- 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개최된 1대1 상담회에서는 태국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 26여 개사와 국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12개사가 참가해 현지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참여 방안에 대해 약 8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,
 - 한국 참여기업이 현지 기업과 스마트 주차관제,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(MOU) 4건을 체결하는 등 향후 수출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성과를 거두었으며, 한국의 스마트도시협회와 태국의 사물인터넷협회 간의 업무협력 양해각서(MOU)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민간 부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튀르키예 이스탄불 마르마라 호텔에서 개최된 튀르키예 로드쇼에서는

튀르키예의 지방자치단체연합회 회장인 파트마 샤흐(Fatima Şahin) 가 지안텡(Gaziantep) 시장을 비롯해 이스탄불(Istanbul) 등 주요 지방정부와 튀르키예 민간기업 150여명이 참석하였고, 한국 측에서는 국토교통부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스마트도시협회와 국내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.

○ 10일 오전 개최된 ‘한-튀르키예 스마트도시 협력 세미나’에선 튀르키예의 스마트도시 시장 진출 여건과 주요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고,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개발 사례와 재난재해방지시스템, 보안 감지센서 등 스마트 솔루션을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.

○ 오후에 개최된 1:1 상담회에서는 튀르키예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 50여 개사와 우리 참여기업들간에 현지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기술협력에 대한 7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,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기술협력 등 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.

□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토교통부는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, 튀르키예 가지안텡시 등 정부간 양자면담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현지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, 우리나라 부산시가 2030 국제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.

○ 한편,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의 스마트도시 개발을 지원하는 “K-시티 네트워크 협력사업”을 통해 태국 콘캔(Khon Kaen), 튀르키예 가지안텡(Gaziantep) 등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“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기술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, 이러한 관심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전수하는

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

- “이번 로드쇼는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도시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호 윈-윈 행사의 의미가 크며,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참고 1

한-태국 스마트시티 로드쇼 행사 사진



▲ 한-태 경제협력 포럼(10.6)



▲ 한-태 스마트시티 1:1 기업상담회(10.7)

참고2

한-튀르키예 스마트시티 로드쇼 행사 사진



▲ 한-튀르키예 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(10.6)



▲ 한-튀르키예 스마트시티 1:1 기업상담회(10.7)